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육영학교 발달장애학생 교육·돌봄·자립 기반 확충”



지정수 송파구의원 (장지, 위례동)

지정수 송파구의원(장지, 위례동)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육영학교 증축은 교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어 “육영학교 교실이 부족

하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교육의 기회를 잃는 것이고, 사회적응훈련의 기회를 잃는 것이며, 결국 아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며 “따라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송파구의회는 한국육영학교 증축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송파구는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증축에 관

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수 의원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한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한국육영학교 발달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